

2016-1학기  
<프랑스문화 산책>  
송태호 교수님

# 프랑스의 진로교육



영어영문학과 2016130780이하은

# 목차

I.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	3
II. 프랑스의 진로교육.....	3
1. 프랑스의 진로교육 목표.....	3
2. 프랑스의 진로교육 현황.....	3
1)중학교.....	3
2)고등학교.....	4
3. 담당 인적 자원.....	4
III. 농무아(Non-moi) 정신.....	4
IV. 프랑스 진로교육의 특징과 농무아 정신.....	5
1. 학급 위원회(le Conseil de Class).....	5
2. 직업계 진출 우호적.....	5
3. 편입과 전공변경 용이.....	6
V.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진로에 관하여.....	6
VI. 참고문헌.....	7

## I.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

현재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교육과 관련된 것을 프랑스 문화산책 노트의 주제로 잡으려고 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고, 프랑스어 시간에 문화에 관해 배우며 프랑스의 학제, 바칼로레아, 그랑제꼴 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배운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꼈다. 여러가지 주제에 관한 논술형의 시험방식을 비롯하여 절대평가제도,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철학 문제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사실이 인상깊었고, 이에 대해 더욱 조사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바칼로레아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칼로레아에 관해 조사를 했다면 피상적인 조사에 그쳤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 해 주신 주제인 '프랑스의 진로교육'에 관해 조사하고 생각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진로교육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프랑스의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이 수업의 취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인데, 특히 진로교육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 II. 프랑스의 진로교육

### 1. 프랑스의 진로교육 목표

전체적으로 프랑스 교육제도는 진로지도를 매우 중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때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하며, 사회 진출 이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진로교육 정책의 핵심 미션은 모든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기전에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 2. 프랑스의 진로교육 현황

#### 1)중학교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3학년(제 4학년) 때 첫번째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다.

중학교 3학년 학기 초 학급위원회(le conseil de class)는 학생의 미래계획, 학부모의 자녀 진로 관련 희망사항, 담임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학생 진로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3학년 마지막 학기에 학급위원회가 학생의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적성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학생이 배워야 할 분야를 고려하여 진학할 학교와 분야, 특히 직업계로 진학하는 경우 학교마다 개설한 직업기술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

성적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 교육적 배려가 높다.

## 2)고등학교

고교단계에서는 일반기술계 고등학교나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기술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1학년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 일반계와 기술계로 나뉘게 되며, 3학년에 이르면 바칼로레아를 보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2년과정의 직업기술자격(CAP나BEP)취득과정을 거쳐 자격취득 후, 취업을 하거나 2년과정의 직업계 바칼로레아 준비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진학을 준비하기도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학년에 맞추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통해 진로를 결정한다.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진학상담은 주로 첫 학기 10~11월에 이루어진다. 매년 진로 진학상담은 주로 담임교사가 진행한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10~11월에는 담임교사와의 상담 이후, 학급위원회 차원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진다. 학부모들도 참석하는 3학년 첫 학기 학급 위원회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견과 조언을 제시한다.

## 3. 담당 인적 자원

### -담임교사

담임교사가 진로진학상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 지도이다. 담임교사는 진로-심리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상담하기도 한다.

### -학교장

학교장은 학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진로의 최종결정을 담당한다.

### -진로심리 상담교사

프랑스 중·고교에는 진로-심리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프랑스 전체에 약 4,500명 정도의 진로-심리 상담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진로-심리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개인별 진로 조언 전문가인 동시에 교사들에게 진로상담교육도 담당한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자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Ⅲ. 농무아(Non-moi) 정신

농무아 정신은 라스코 동굴로부터 시작한 프랑스 문화 산책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처음 이 개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수업을 들

으며 프랑스 문화, 아니 인간의 삶 전체가 이 농무아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이해한 농무아 정신이란 다른 게 아닌 '타인을 위한 희생'인데, 인간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길러지다 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세상을 마주한다. 이처럼 인간은 탄생하는 것부터 이미 어머니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人間이라는 한자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타인을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은 라스코 동굴 벽화의 사제나 예수의 모습처럼, 죽음을 통한 희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농무아 정신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문화에서 농무아 정신을 지니는 것은 필수적이다. 농무아 정신의 결핍으로 인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심,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 및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발생한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진로지도와 교육제도에서 농무아 정신이 결핍된 모습이 보인다. 반면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진로교육에서는 농무아 정신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V. 프랑스 진로교육의 특징과 농무아 정신

### 1. 학급 위원회(le Conseil de Class)

구성원: 교장, 교무주임, 진로상담 주임, 담임교사, 학생대표 2인, 학부모 대표 2인, 양호 교사

학급 위원회는 학생 진로결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하며 결정한다.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학생의 진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이 학생의 성적과 관심, 학부모와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매우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제안한 진로가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와 다를 경우, 재상담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전문적인 교사들이 진로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진로 지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진로를 여러 사람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학생의 진로결정을 남일로 생각하거나 학생 본인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진로결정을 위해 많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무아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 2. 직업계 진출 우호적

프랑스기업에는 능력중심의 고용인사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도 단순한 학력추구 보다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도제식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기업과 계약하여 직업기술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2004년-2005년 고등학교 3학년 계열구성 비율은 일반계가 52%, 기술계와 직업계가 48%다. 이처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인문계에 해당하는 일반계로 학생들이 쏠리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기술계나 직업계로 진학한다.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으면 실업계에 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직업계 진출에 우호적이다. 이렇듯 한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지니거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농무아 정신을 볼 수 있

다.

<표1: 프랑스와 대한민국 비교- 직업계 진출과 관련하여>

	프랑스	대한민국
중학생의 대학진학 희망률	52%	95%
직업계진출(실업계나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 희망률	47%	5%

### 3. 편입과 전공변경 용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일반계와 기술계, 직업계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계나 기술계로 진학하여도 직업기술자격 취득 후 일반계로의 편입이 허용된다. 또한 프랑스 고등교육체제는 전공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선발을 하는 대학(예를 들면, 그랑제꼴)이 많아 대학에서 2년정도 수학한 후 다른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공분야를 바꾸는 예가 많다. 뿐만 아니라 바칼로레아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바칼로레아 분야와 상관 없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점은 농무아 정신과 관련이 있다.

## V.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진로에 관하여

프랑스는 유치원때부터 직업세계와 시민정신을 가르치는 등 진로교육을 한다. 중, 고등학교에도 진로상담교사와 학급 위원회 등 학생의 진로 결정을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교사가 있다 해도 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의 흥미나 적성, 가정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진로결정을 할 때 포함시키는 프랑스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를 결정 할 때 성적 외에 다른 요소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전공을 결정 할 때도 성적만을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대생 1학년의 휴학 또는 자퇴 비율이 약 27%라고 한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채, 네임벨류만 보고 학교에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에서 50%이상의 점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국공립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우선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능과 달리 절대평가이다. 학생들 간의 경쟁을 일으키고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인 바칼로레아 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한다. 또한 몇일 간 치뤄지는 논술형 시험인 바칼로레아는, 단기간에 학생의 모든 실력을 평가하는 수능과는 달리 학생들 개개인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평준화 되어 있어, 대학교의 서열을 매기거

나 대입에 목을 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농무아 정신 수용여부가 확연히 드러난다. 학생들의 생각을 획일화 하는 수능과, SKY, 인서울 등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모습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농무아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절대평가 제도 역시 타인을 위한 희생 보다는 이기심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교육제도에서는 초, 중등 단계에서 유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약 20%가 유급을 하고 있으며, 중학생도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급하여 학생 진로선택을 1년정도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열만 높을 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필자도 영문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적성에 맞는지도 모른 채 그냥 대학에 왔다. 필자 역시도 우리나라의 부실한 진로교육의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농무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전공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 있었다. 원래 영어교육과에 지원하려 했으나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좋은 학교에 가려고 성적에 맞춰서 영문학과에 갔다가 후회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영어교육과와 영어영문학과의 차이는 물론,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농무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직업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진로를 찾아 나갈 텐데, 이 때 전공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뀌는 직업세계를 고려하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을 다짐했다.

## VI. 참고문헌

-우리나라 대학진학 경쟁완화 모색을 위한 프랑스 학생의 진로현황 분석

<http://www.riss.kr.oca.korea.ac.kr/link?id=A101742325>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v.php?Ac\\_Group=4&Ac\\_Num0=15988](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v.php?Ac_Group=4&Ac_Num0=15988)

-한국 진로교육의 오늘: 현황과 과제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11291>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교육 및 진로 지도 실태 비교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97713>